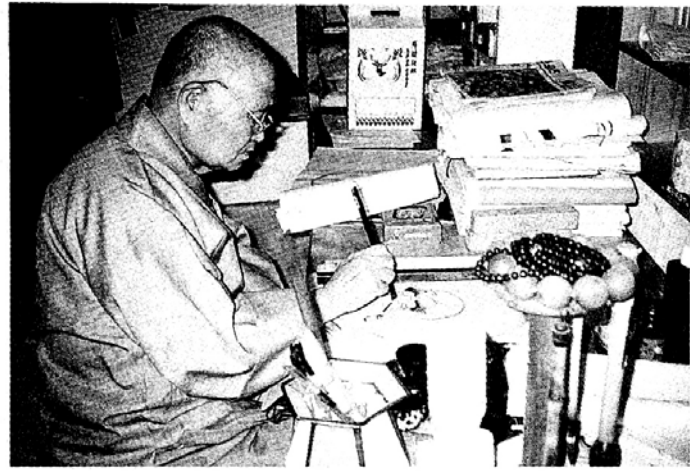


크스님 수행한담

몸에 배여 이치 트여요”



◇경화 선원사의 두평 남직한 방에서 점잖이 '달마선(達摩)' 정진을 하고 있는 선산스님.

달마조사를 그리면서 배워놓았던 탕화배 접 일이 도배일과 비슷해 시작하기 수월했어요. 도배일은 1985년까지,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처음엔 주민 7명과 함께 시작했지만, 80년에 와서는 도배 공간 2백여명으로 늘었어요. 간살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나를 '도배장이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동도 수행자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방편중 한 가지라고 여겨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 법당을 찾아온 신도들의 시주금으로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생계가

지 않는다는 말도 일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기보다 일을 하며 몸과 마음을 바로 세우고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는 수행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돈암동에서 함께 도배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나는 도배일을 미련없이 그만 두었어요. 도배업이 목적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에게 생활 방편을 마련해주고 불심을 키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승이셨던 은사님도 이것을 보셨으

“30년동안 가난한 신도들에게 도배를 가르쳐 일을 하게 했어요 이것이 포교요 불사라는 생각에서...”

마음을 가꾸는 일에 근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 편안한 마음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 찾아야 하고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에게 있는 그 자리를 속히 찾는 것이 수행입니다. 팔뚝을 잘라 법을 구했던 헤가가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 달라고 하자 달마스님은 불안한 그 마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헤가는 찾아도 찾아도 찾을 길 없는 그 마음을, "이미 내가 네 마음을 편케 했다"는 달마의 한마디 앞에서 비로소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편안한 마음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든 찾을 수 있습니다. 물욕으로 가리지 말고 탐심으로 더럽히지 말고 근면 성실한 삶의 자세를 이어가면 찾아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배일을 그만 두고 이후 김해 무량사 법심암(法心庵)에서 10여년간 달마도반을 그렸어요. 달마도(達摩圖)에는 한 줄기 갈대일 위에 몸을 싣고 물위에 서 있는 달마를 형상화한 달마절노과강도(達磨折蘆過江圖), 좌선하는 달마를 그린 달

마의 깨달음은 경전이나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깨쳐야 한다며 수행자의 의지를 침묵속에서 요구하는 것 같아요. 달마스님의 벽관(壁觀) 수행 만큼 내 지관(紙觀) 수행의 정진을 자극하는 것도 없습니다. 욕심없는 청정한 공심(空心)을 그리는 것이 지관입니다. 그 공심에서 그 어지는 한획 한획이어야 달마조사를 찬탄하는 도상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 속에서 부처님 제자된 보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화·단청을 그리는 스님들과 미술가 사이에 차이를 두는게 아니겠어요. 무량사에서선 선원사에서선 나보고 그냥 화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세속 화가들과는 달리 깨달음의 방편으로 붓을 들어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 하나 새겨넣는 것입니다. 선화에서 뿜어나오는 선기(禪機)의 방사는 수행의 깊이와 정비례하므로, 선화는 널리 교화의 방편도 되는 것입니다. 오래 있으면 정이 들고 집착이 생긴다는 마음에 법심암을 떠나 선원사를 찾은 지도 벌써 2년이 됐어요. 법심암을 떠날 때는 선원사가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뒤여 역전 식당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된 어느 스님에게서 선원사를 알게 되었고, 길 안내를 그 스님께 부탁했어요. 서해안 거드랑이인 강화에 선원사가 있더군요. 처음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었는데, 선원사를 중심으로 한 설경이 아아말로 한쪽의 그림이었습니까. 또 고려시대 수많은 불자들이 모여 팔만대장경 판각불사를 했었던 불교 성지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곳이 불교성지이고 종림이 좋아서 놀러왔던 것이 아닙니다. 선원사와 마주하고 있는 바다에서 필선(筆線)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다는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다가 고요히 있거나 혹은 침묵 속에서 걸거나 파도가 몰아칠 때에도 그대는 모든 형태를 초월해야 한다. 움직임과 정지, 행위와 무위를 다 초월해야 한다. 밤과 낮, 삶과 죽음을 초월해야 한다. 이 모두를 초월하라. 그때 그대는 그대 속에 가장 지고한 향기를 지니게 될 것이다."

정리=오종욱 기자

나와 경전



금강삼매경



고영섭 동국대 강사

경전은 길이다. 인간과 세계를 잇는 길. 그 위에는 삶의 결이 수놓여 있다. 내가 <금강삼매경>을 접한 것은 원효(617~686)스님을 만나면서다. 이 경은 원효의 주석서인 <금강삼매경론>으로 더 알려져 있다. 그때문에 경전으로서의 정체성이 원효의 책이름 속에 묻혀버렸다. 아니 오히려 원효의 주석으로 인해 대중적인 경전이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학부시절 나는 원효라는

호칭과 지칭으로 사용하고, 법을 칭하는 예의의 몸가짐을 '합장 호계'로 간추려 통칭하며, 법을 붙는 보살이나 제자들을 '선남자여!' 내지는 '보살(마하살)이여!' 또는 '장자여!'로 호칭하고, 각 품마다 청(靑)법자를 달리하여 정연하게 교설을 설하고 있는 점들이다.

실제, 본각 이행의 가르침을 살피고 금강삼매에 드디어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자 아가(無去, 滅去) 비구가 이 뜻을 밝히기 위해 계승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무상법품'에는 모든 현상을 깨뜨리기 위해 모습 없음을 관하며, '무생행품'에서는 모든 현상을 깨뜨렸지만 관하는 마음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관하는 마음을 없애어 생함이 없는 행

이 경은 8품으로 되어 있다. '서품'에서는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대중을 위하여 일미진실, 무생 무상, 결정 화두를 부여잡고 <금강삼매경>의 미로를 추적해 보았다. 도안(314~385)의 경록에는 북량(387~439)시대에 분설된 번역경이라고 하고, 승우(445~518)의 <출삼장기집>에는 이름만 있을 뿐 경전은 없어진 것으로 적혀 있다. 그 후 수나라의 세 목욕이나 당나라의 여러 목욕 등에 도 빠진 경본으로 기록되어 있다. 때문에 위의 경전이 현존경이라고 단정

수행·대중교화의 이익 밝혀 원효스님의 주석서 이해 도와

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몇 백년이 지난 뒤 당나라 지승의 <개원석교록>(730년)에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서 편집한다'고 하면서 현존본으로 적고 있다.

을 드러낸다. '본각이품'에서는 무생행이 이미 생하지 않는다면 비로소 본각을 만나 중생을 교화하여 본각의 이익을 얻으며, '일실제품'에서는 본각에 의해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 중생은 허망으로부터 실제로 든다고 설한다.

이 경에는 우수한 대승경론의 교설이 투명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조시대 대에 논의된 불화의 모든 성취가 총성되어 있다. 심지어 현장이래(645년) 신유식의 용어와 선종언어까지 등장한다.

'진상공품'에서는 안으로의 수행은 곧 생함도 없고 모습도 없으며 밖으로의 교화는 곧 본래 이익이자 실제로 드는 것이므로 이러한 두 이익은 온갖 행을 갖추고 동시에 참다운 성품으로 드러날을 밝힌다. '여래장품'에서는 이 참다운 성품에 의해 모든 행을 갖추고 여러장 일미의 근원으로 들어감을 보여주며 이미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할 것이 없고 또 하여지는 것도 없고 기 때문에 이 여섯 문(품)을 가지고 대승을 포섭하는 것이라고 설한다.

<금강삼매경>은 대승논서의 문제와 의취가 드러워진 매우 철학적인 경전이다. 이 경의 성립 연기설화가 실려 있는 <송고승전> '원효전'의 기록처럼 <금강삼매경>은 신라 왕비의 악성 종양(중생의 병)을 매개로 하여 겁에(?) 용왕과 편지자 대인과 주석자 원효의 세 인물에 의해 출현하고 있다. 설하고 있는 교리 역시 붓다의 가르침에 잘 부합되고 있다.

이 경은 나로 하여금 언제나 일미로 세계를 관할하고 그대로 실행하게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상화 하지 말고 자아화 하라고 일깨운다. 동시에 원효의 행을 통해서 이 경전을 보지 말고 나의 눈으로 비추어 보게 한다. 깨뜨릴 수 없는 삼매 수행으로 향시 길 안에 있기를 촉구한다.

내가 <금강삼매경>에 끌린 것은 이 경전의 소박함 때문이다. 우수한 대승 경전과는 달리 초기 경전인 <아함경>처럼 부처님의 인간적 모습이 배어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사리불과 목건련 등에서 보이는 '존자'를 부처님의

일은 몸과 마음 닦는 수행 정진의 방편 "소유하지못해 안달하는 것이 고통의 삶"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배일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포교요, 불사라 생각하고 그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규를 늘 명심했지요. 무소유를 실천하고 맑은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버리는 정진이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공사장을 전전하며 도배일을 하는 것에서도 수행의 기쁨이 깃들 수 있는 것은 벽과 천장을 도배하며 집 한칸 한칸을 완성해 나갈 때 쏟은 땀과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땀 언졌다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끝낸 후에 얻는 즐거움은 말 할 수 없이 크지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

면 흠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어떤 물질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대자유 아니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일 것입니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는 갖은 자유인 것이지요.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무명을 떨쳐 버릴 때 얻어지는 것이죠. 불사가 원만한 이뤄져 회향을 하는 것은 불사의 스님과 신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불사를 추진하고 정재를 모아 쓰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일 자체가 청정하기에 결과도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집착하거나 소유를 못해서 안달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편안한 것입니다. 그 편안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그런

마법관도(達摩壁觀圖), 헤가가 달마에게 자신의 구도 열정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한쪽 팔을 잘랐다는 고사를 도해한 헤가비비도(慧可斷臂圖), 달마의 안면과 가슴 부위까지만 그린 반신달마도(半身達摩圖), 달마가 가족한 짝만 신고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고사를 그린 적리달마도(隻履達摩圖)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나는 반신달마도를 즐겨 그리고 있어요. 반신달마도에서 달마스님의 모습은 선종 초조(初祖)의 위용과 기풍이 있다기 보다는 수행의 고통과 증득의 고위함을 이심전심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신달마도에서 달마스님의 커다란 눈, 눈동자의 강렬한 표현과 9년 면벽으로 사그러진 손과 발은 마치 부처

Advertisement for 'EVO' skin care products.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product packaging and text in Korean. The main headline reads: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自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Skin that is not polluted by modern pollutants! Achieved in fresh nature). The ad lists benefits such as '항균력' (antibacterial), '항진균력' (antifungal), and '항염력' (anti-inflammatory). It also mentions '오보크린' (Oboclin) as a key ingredient. The bottom of the ad includes the company name '(주)씨·티·에프' (S.T.E.F.)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ir Seoul office.